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오리건주 포틀랜드
파견대학	Portland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8.9월 ~ 2019. 6월(9개월)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포틀랜드 주립대학교는 작은 도시인 포틀랜드 다운타운과 가까이 위치해있습니다. 캠퍼스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운타운 건물들과 섞여 있습니다. 시설은 새로 지어진 곳도 있고 조금 낡은 건물도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는 경찰들이 순찰도 하며 매우 안전합니다. 캠퍼스 건물들이 무리 지어 있는 곳에는 기다란 공원이 있는데 날이 좋을 때 나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분위기는 평화롭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2018-Fall Quarter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학기제가 아닌 쿼터제여서 3개의 쿼터를 듣고 왔습니다. (가을, 겨울, 봄) 한 쿼터당 최소 12학점 (과목 한 개당 대부분 4학점) 12학점 넘으면 각자 수업료 추가로 지불. 1) INTRO BUSINESS & WORLD AFFAIRS 비즈니스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필수 과목입니다. 비즈니스에 관해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합니다. 경제학, 마케팅 등을 배우고 거의 100명이 듣는 대형 강의 입니다. 수업 방법은 교수님이 전공 책 기반으로 항상 피피티 자료를 올려 주십니다. 과제는 많습니다. 개인 과제도 있지만 조별 과제가 대부분이며 교수님이 랜덤으로 짜 주십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교환학생이고 친구랑 붙여달라고 물어보면 될 거 같습니다. 조별 잘 만나면 조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중간과 기말이 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있습니다. 비 추천, 추천을 떠나서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다음 과목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보고 싶다, 미국의 대형 강의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겐 추천합니다. 책은 렌트 또는 중고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너무 비싸서 새로 사는 건 비 추천합니다. 2) INTRO INTERNATIONAL STUDIES 전공으로 들은 국제학에서는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들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피피티자료를 올려 주십니다. 하지만 피피티 자료가 너무 뒤죽박죽이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있어서 힘들었습니다. 또,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테이킹은 필수 입니다. 다 개인 과제와 에세이가 있습니다. 중간은 에세이로 대체하고 기말 시험은 보는데 다 주관식입니다. 저는 수업을 따라가는데 너무 벅찼지만 교수님이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책은 살 필요 없음. 전반적으로 비 추천입니다. 3) INTRO TO COLLEGE WRITING 공통 교양 같은 과목입니다. 과제로 내주시는 글 또는 책을 읽어 수업 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 수업이고 매주 포털에 글을 읽고 난 후 독후감을 씁니다. 그리고 시험은 없고 에세이 2개를 씁니다. 제가 들은 교수님은 Nada 라는 분이며 활발하고 좋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책 살 필요 없음.
2019-Winter Quarter 수업	1) BUSINESS COMMUNICATION USING TECHNOLOGY 주로 비즈니스에 쓰이는 대화 방식(비즈니스 식 이메일 보내기, 공고문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나름 수업내용은 쉽고 재미있습니다. 과제는 조별 과제와 개인 과제가 있고, 중간시험 하나 있습니다. 대신 학기말에 조별 발표를 합니다. 추천합니다. 2) PRINSPLE OF 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은 약간의 대형 강의 입니다. 교수님이 피피티로 가르쳐 주시고 자료도 올려 주십니다. 모두 개인 과제이며 총 시험이 3개있습니다. 과제는 우리가 배운 토대로 유형 문제를 올려주시면 풀면 됩니다. 친구와 같이 듣거나 한국인 친구가 있다면 학기 내내 같이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 문제도 같이 만나서 파트 나눈 다음 풀면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재미있게 들어서 추천합니다. 교재는 아마존에서 중고로 싸게 사거나 렌트 하는게 좋습니다. 3) HISTORY OF WESTERN ART 교양수업으로 들은 수업인데, 쿼터 마다 연도별로 주제가 달라 매번 있는

	수업입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주제였던 수업을 들어서 따라가는 데에 힘들었고, 교환학생을 따로 생각해주는 건 없습니다. 노트테이킹 하는게 좋습니다. 수업 토대로 매주 포털에 퀴즈가 있으며 시험은 모두 온라인 시험을 봅니다. 과제로 에세이는 1개가 있고 수업에서 다룬 시대를 기반으로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것으로 에세이를 쓰면 됩니다. 책은 아마존에서 렌트 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비 추천합니다.
2019-Spring Quarter 수업	1) MARKETING MANAGEMENT 교수님에 따라서 듣는 학생들이 많고 적고, 각자 다릅니다. 저는 Lena 교수님 께 들었고 학생이 많진 않았습니니다. 과제는 개인 과제 (매주 2문제씩 퀴즈) 와 조별과제 (상품을 유니크하게 기획하여 마케팅 플랜 짜서 마지막에 발표) 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교수님이 전 주에 정리된 피피티 자료를 제공해주시기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기말고사는 발표로 대체합니다. 수업 시간대가 5:30 ~9:20 이기에 약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 시간대에 수업은 매주 1번 밖에 안 들어서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수님 것도 재미있을 거 같고, 조별 과제는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2)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3쿼터 동안 제일 후회했던 수업 이였습니다. 매 쿼터마다 특정 연도를 다루며 있는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자신은 뉴욕에서 와서 말이 빠를 수 도 있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말이 정말 빠르시고, 피피티도 이미지만 넣으시고 대본을 가지고 그냥 수업에서 읽으십니다.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해도 빨리 말하십니다. 시험은 더욱 어렵습니다. 3-40개의 키워드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역사 스토리를 다 외워야 하고, 짧은 에세이도 준비해야합니다. 중간, 기말고사는 똑같고 너무 따라가기 힘들고 벅찼습니다. 수업이 약간 영어를 잘 못하는 (교환)학생들을 고려한 수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말 비 추천입니다. 3) COLLEGE WRITING 이러한 교양은 교수님 마다 수업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Joseph Ginsberg 라는 대학원생분이 선생님 이셨고, 수업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선생님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학생들도 다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수업에 정적이 흐르는 게 매번 기본 이였습니다. 과제는 모두 개인 과제로 매주 긴 글을 읽고 최소 250자로 독후감을 남겨야 합니다. 시험 대체로 에세이 2개 써야합니다. 에세이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과제였습니다. 주제도 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은 너무 별로여서 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Undergraduate만 따로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티에서는 여러 사무실의 역할, 연락처, 경찰 연락처, 비상연락처 등을 알려주시고, 장학금 제도, 상담실, 글쓰기 교정센터 등 다 유용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 조원들과 친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도 하고, 식사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exchange student 로 온 학생들만 모아 비자, 보험, 기숙사, 학교 생활, 국제학생들을 위한 활동 등 여러 정보를 또 알려 주십니다. 담당부서는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이고 담당자명과 여러 프로그램은 PSU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 담당부서를 찾으면 나옵니다.

3. 생활 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i>현지 기후 및 유의점</i> 포틀랜드는 겨울에 비가 자주 내립니다. 비가 자주 내리기로 유명해서 사전에 우산을 챙겨갔지만, 막상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않고 바람막이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그냥 맞고 다닙니다. 생활하면서 저도 우산을 거의 쓰고 다니지 않고, 후드 티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주로 비가 오는 11월 말부터 2, 3월 까지는 대체로 우중충한 날씨입니다. 현지사람들에 의하면 날씨는 9-10월, 6-8월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교환학생기간의 대부분이 우중충 했지만 운 좋게도 제가 다녀온 연도는 비가 오는 달이 적어지고 맑은 날이 많아졌다며 약간 예외였다고 합니다. 눈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몇 교수님들은 휴강을 하시고, 학교는 문을 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따뜻하며 한국보다 춥지않고 습하지 않아 생활하기 좋습니다.

안전	<i>현지 안전 상황</i> 포틀랜드는 인종차별이 적어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다만 다운타운에 가면 노숙자가 많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노숙자들이 돈을 요구를 하긴 하지만,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약과 총기 소유가 합법이다 보니 가끔씩은 수상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다운타운에서 혼자서 다니지 마시고 항상 친구들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 주위에는 경찰들이 항상 순찰을 돌기 때문에 캠퍼스는 안전합니다. 가끔씩, 학교 주변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했다 하면 학교에서 경고 이메일을 보내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점을 유의하며 생활하시면 문제 없을 것 입니다.
숙소	<i>학교 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 Broadway 기숙사에서 한 쿼터 생활하고 Ondine 으로 옮겨 생활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지어진 지 별로 안돼서 깨끗합니다. 온딘은 학생식당이 있는 곳인데 나를 깨끗한 편입니다. 기숙사 분위기는 층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층마다 RA라고 층장이 있으며 층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룸메, 2명이 화장실, 부엌을 쓸 수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생활하다가 조금 더 저렴한 4인이서 화장실 부엌을 공유하는 온딘으로 옮겼습니다. 서로 규칙을 정해 지킨다면 큰 문제없이 잘 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	<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 <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 <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 저는 오기 전에 밀플랜을 하지 않는게 좋다는 소리를 듣고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길 잘했습니다. 한번 먹는데 9달러이며 매번 음식이 같다고 합니다. 저는 식재료를 사서 주로 방에서 해먹었고, 외부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한 끼에 보통 \$10 에서 \$13은 나가며 매번 사서 드시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서 직접 요리해서 드실 수 있으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직접 요리하면 요리 실력도 많이 늘고,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	<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 모든 기숙사가 캠퍼스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학은 걸어서 했습니다. 시내 교통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Street Car라고 지상철이 있는데 psu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상철인 Max는 요금을 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곳을 가기 때문에 다리 건너 동쪽으로 가실 때 유용합니다. 또 버스노선도 많기 때문에 생활하는 동안 교통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주로 스트리트카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60만원 (따로 편도로 끊음)	에어캐나다 (인천공항-밴쿠버-포틀랜드) 아시아나 (포틀랜드-LA- 인천공항)
Fees	Per Quarter \$2700 (등록금 제외)	기숙사에 따라 하우징비용도 조금씩 다르고, 기본으로 내는 Fees에는 학생병원이용비, 헬스장이용비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약 60만원대	현대해상 해외장기체류 보험
숙소	Broadway (per Quarter \$2195) Ondine (per Quarter \$1650)	
식비		
교통비	티켓 2.5시간 \$1.25 하루 \$5	Street Car, Max, Bus 이용
책값		학교서점에서 렌트 또는 중고 구매 아마존에서 렌트 또는 중고 구매
오리건 여행	1박 2일 약 \$200	렌터카 이용, 주로 자연경관 구경
시애틀 여행	2박3일 약 \$300	교통은 친구들과 렌터카 이용
LA여행	약 \$500-700 (두 번 다녀옴)	
합계	약 \$16,000 이상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가기 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통신사를 쓸 건지, 어떤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 것인지 여러 번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psu에서 준 welcome package에 들어있는 Mint Mobile 유심을 이용했고, 은행은 Wellsfargo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실 때는 부모님이 카카오�뱅크를 하나 만드셔서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해외송금을 이용하시려면 학생 분이 미국에서 먼저 계좌를 만드시고 은행에서 나눠주는 은행 코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본인이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미리 출국 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병원비와 약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 미국에서 병원을 찾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친구들과 렌터카를 많이 이용했고, 또 렌터카로 여행을 오리건 로드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크레이터 호수가 유명한 호수 인데, 날씨 때문에 5월달까지 열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못갔지만.. 가시기 전에 많이 정보검색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포틀랜드가 따뜻해졌다고 오리건 주 전체가 따뜻해 진게 아니더라구요.

미국에 가기 전에 각자 본인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무엇을 해 볼 것인지, 본인의 목표와 리스트를 만들어 가시면 좀 더 알찬 교환학생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3개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한국학교와는 다르게 시간이 많이 여유로울 것입니다. 그런 시간 동안 다른 공부를 하셔도 괜찮고, 어디를 다녀 오셔도 좋습니다. 각자 깊이 고민하여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만 노시지 마시고, 스트릿카를 타고 23rd Ave 놀러가시고, 다리건너 동쪽으로 가시면 정말 이쁘고 괜찮은 카페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아서 자주 가려고 노력해도 많은 카페를 가보진 못했지만 꼭 East side에 있는 예쁜 카페들, 맛있는 식당을 검색하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다운타운에서만 놀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꼭 Government Camp 로 스키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1,2월이 가장 적합한 달이고 스키장비들은 모두 렌트 할 수 있으니 눈 아래까지만 막아주는 마스크와 모자 등은 따로 사서 가시길! 모두 자연 눈으로 정말 잊지못할 최고의 스키장일 것임.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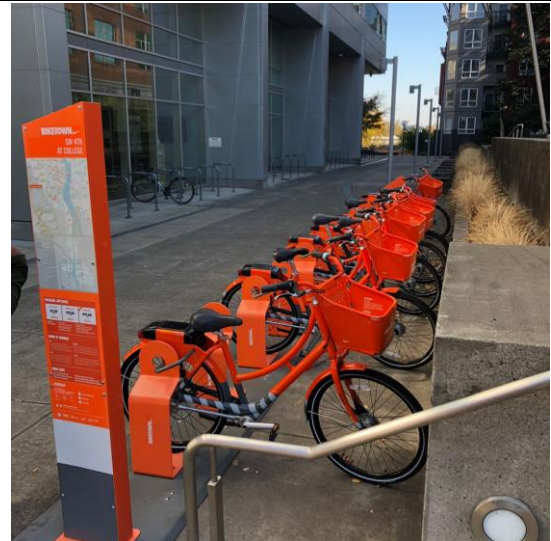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많은 교환학생들 중 포틀랜드로 가는 사람은 저 혼자 뿐이 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많이 검색해가며 교환학생을 준비해서 인지 포틀랜드에서 10개월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이였습니다. 저는 제 교환학생 생활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였기에 더더욱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다양한 행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홈 파티도 가게 되어 재미있는 생활도 했던 거 같습니다. 학교 건물 중 렌 센터인 헬스장에서도 친구와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는 등 psu학생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활용하려 했습니다. 가끔씩은 나 자신이 제대로 생활하고, 알차게 보내고,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지만, 초기의 마음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넓어졌고 마음가짐은 달라졌으며 잊지못할 경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가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에서 본 도시 야경



공용자전거 (psu 학생신분으로 가입하면 무료. 반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천)

	
Pioneer Square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Mt.Hood 주변 Government Camp 스키장 (완전추천)
	
오리건 로드트립 중	친구들과 Halloween Party

201804 Fall 2018 Quarter Term Detail

Description	Charge	Payment	Balance	Pay Now
ASRC Student Rec Center Fee	\$44.00			
F030 Student Incidental Fee	\$240.00			
F031 SHAC Hlth Cntr Fee	\$149.00			
F032 Student Building Fee	\$37.00			
H105 Housing Advanced Payment	-\$150.00			
HB03 Room & Board Fees	\$2,366.04			
HWEB HOU Web App & Prepay	\$200.00			
M445 SHAC Service Fee	\$28.55			
M995 OISSS Processing Fee	\$20.00			
URTU Undergrad Res Tuition	\$2,052.00			
ECCK E-Check Received		\$689.59		
HPAY Housing Web Payment		\$200.00		
Q796 IEP Student Trust		\$2,052.00		
	Net Term Balance		\$2,045.00	
	Net Balance for Other Terms:		-\$2,045.00	
	Account Balance:		\$0.00	